

便血에 對한 考論

鄭 相 守



一. 緒論

1. 血證(血證)

血證이란 제반출혈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출혈 현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어떠한 출혈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로 입과 코 또는 모든 규(竅)로 상일(上溢)하는 것과 혹은 아래 이규(二竅)로 내려오는 것이 있으며 혹은 피부 등으로 세어나오는 血汗 등이 있다. 모든 증세를 혈증이라 한다.

2. 증세의 문제제기

내경(內經)의 혈증을 살펴보면 혈일(血溢)과 혈설(血泄)과 육혈(衄血)과 해혈(咳血)과 구혈(嘔血)과 뇨혈(溺血)과 수혈(洩血)과 변혈(便血) 등으로 기재(記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혈증은 그 외에도 출혈의 증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위출혈 등 내출혈 현상은 현대의학상식으로 그 범위가 단순성 위장 궤양성 출혈과 간장질환으로 인한 출혈과 변혈 등을 증상별로 출혈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위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원발성 질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직장 및 대장암(大腸癌) 등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속한다. 소변으로 나오는 출혈 역시 방광이나 혹은 신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암질환과 단순한 요로 등의 결석에 의한 질환으로 상처부위에서 발생하는 제반질환에서 수반하는 출혈 현상과 또한 부인들의 생식기 등의 모든 출혈증세는 우리가 과히 놀랄만 하다. 이 혈증을 여러각도에서 발생하는

원인분석으로 알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술의 덕으로 볼 수 있다. 여기 혈증 중에서 변혈에 대한 이론과 치료를 알아보려고 한다

二. 本論

1. 혈의 생성과 혈증이 원인

(1) 혈액의 한의학적인 생성의 원리는 혈유수곡지 정기소화생(血由水穀之精氣所化生)이라 하여 먹은 음식으로부터 혈이 발생한다. 영추결기에(靈樞·決氣) 설하기를 중초수기취즙(中焦受氣取汁), 변화이적(變化而赤) 시위혈(是謂血)이다. 혈액은 비(脾)에서 생하고 간에 저장하며 심장에서 총통(總統)하고 폐에서 수포(輸布)하며 신에서 정(精)으로 변화케 하고 맥은 혈부(血府)라하고 있다. 혈은 생성하면서부터 맥관 내에 머물며 한시도 쉬지 않고 체내를 순환하고 전신에 영양공급을 하고 각종의 원인으로 인하여 맥락에 손상이 오면 혈액이 망행(妄行)하여 체외로 혈일(血溢)하는 것을 혈증(血證)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2) 음주과다나 혹은 매운음식 등 후미(厚味) 등으로 습열이 안으로 발생하고 혈락에 혼작으로 인하여 박혈망행(迫血妄行)으로 녹혈(衄血) 토혈(吐血)과 변혈(便血) 등 질환이 기인(起因)하고 또한 과식신날(過食辛辣) 후미(厚味)와 순주(醇酒)등은 비위를 손상케하고 비위가 허쇠(虛衰)하면 건운통섭(健運通攝)의 직무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맥외로 혈일(血溢)하여 혈증이 발생한다.

(3) 정지과극(情志過極)으로 인한 혈증 정지과극하여 화가 내동(內動)하면 울노상간(鬱怒傷肝)하여 간기가 범위하여 위락을 손상하면 인기(因起) 토혈한다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간(肝)질환으로 인한 식도 정맥류(靜脈瘤)등으로 인한 토혈 등의 여기에 속한다.

(4) 방로상신(房勞傷腎)으로 인한 뇨혈(尿血)의 여기에 속하고 위에서 논술한 이외에도 각종 질병의 원인에서 기인할 수가 있으며 그 공통성으로 병리변화는 들 수 있으나 혈증의 주적(主賊)은 내열의 원인이 다수(多數)의 이 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다.

2. 血症의 東洋醫學的 發生 原因

감수외사(感受外邪)를 들 수 있다. 외사로 인하여 맥락에 손상하여 출혈을 인기할 수 있고 그중에도 열사가 들어올 때에 출혈되는 것이 원인중에 가장 많고 열(熱)과 조(燥)가 폐를 범할 때에 녹혈(衄血)과 해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임증지남(臨症指南) 의안 토혈(醫案 吐血)에 설(說)함은 외인(外因)으로 인한 양사(陽邪)가 가장 많고 이 병이 오기 전에 음분(陰分)이 선허(先虛)하고 이럴 때에 쉽게 대기(大氣)중에 풍열(風熱)과 조화(燥火)의 기를 받기가 쉬우며 음사(陰邪)에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一, 二에 불과하지만 습열(濕熱)의 사기(邪氣)가 장도(腸道)에 침습하면 변혈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하초에 침습(侵襲)하면 뇨혈(尿血)이 발생한다 하고 또한 금궤요약(金櫃要略)혈문(血門)에 기록은 열재하초(熱在下焦)하면 뇨혈이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변혈은 즉 항문 출혈로서 치(痔) 출혈과 장벽사리(腸癖瀉利)를 동반한 미란형 대장염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또한 변혈의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으나 신랄후미(辛辣厚味)를 많이 먹고 과다한 음주를 하고 익일(翌日)에 하복통이 동반 출혈하고 혹은 별 무 증상으로 배변시에 출혈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먼저 그 증세부터 파악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선입견으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수시로 선홍색의 연속성 출혈은 직장이나 혹은 장암으로 의심하여 볼만하다.

①은 치출혈(痔 出血)로서 배변시에 먼저 출혈이 있고 후에 배변이 이루어지면 항문파열로 인하여 출혈하는 것으로 근접한 출혈이기 때문에 색도가 선

홍(鮮紅)하고 선혈 후변은 쉽게 그 원인을 치질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②는 하복이 미 진통하고 배변후에 사하(射下)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인은 S결장 위(上)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세로서 장염에 해당하는 병으로 볼 수가 있다 서양의학적으로 구분한다면 이 증상을 여러가지로 구분하여 병리를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경성대장염 또한 결핵성 장염 또는 과민성(過敏性) 대장염 등으로 다양화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 의학적인 진찰방법 또한 복잡하다 항문으로 내시경으로 직장을 촬영하는 등의 출혈되고 있는 부위나 원인 등을 찾아내는 것으로 진찰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 한방의학적인 증상과 치료방법은 서양의학의 논치(論治)보다 수준이 높을 수가 없다

항문에서 체외로 출혈을 배변 전후 출혈을 막론하고 단순성 출혈이나 대변에 복잡하게 섞어져 나오는 등 균칭(均稱)하여 우리는 변혈(便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삼인극일 병증방론(三因極一病症方論)에서 설(說)함은 변혈에 대한 증치(證治)를 살펴보면 “병자대변하혈(病者大便下血) 흑청흑탁(或淸或濁), 흑선흑흑(或鮮或黑), 흑재변전(或在便前), 흑재변후(或在便后), 흑여설물병하(或如泄物并下), … 역병행지류(亦並行地榆), 고알변혈(“病者大便下血, 或淸或濁, 或鮮或黑, 或在便前, 或在便后, 或與泄物并下, 亦妄行之類, 故曰便血”)

또한 금궤요약에서는 원혈(遠血)과 근혈(近血)로 분류하였고 경약전서 혈증론에서는 역시 변전과 변후로 나뉘고 가까운 것은 광장(廣腸)과 흑은 항문에서 출혈을 한다고 논하고 있으며 원자는 흑은 소장이나 위장 등으로 확대 설명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다 집증(執證)에서 주 안색과 변혈의 발생부위 상으로 원근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고대 의학자들도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색도상으로 선홍과 암흑으로 그 원근(遠近)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고대 의가(醫家)들도 혈색의 청탁으로 장풍과 장독으로 구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제생방(濟生方) 하리(下利)문에서도 대변하혈은 청이색선자(淸은

而色鮮者)는 장풍이며 탁이색암자(濁而色暗者)는 장독이라고 하고 있다. 암흑색 등의 하혈은 모두가 위장의 맥이 수손(受損)하여 이루어진 소치(所致)이며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장도(腸道)에 습열(濕熱)과 비위허한(脾胃虛寒)의 두 부류로 구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도(腸道)의 습열은 변혈이 선홍하고 배변이 불창하고 혹은 희당(稀漉)하고 혹은 복통이 곁하고 구고(口苦)하며 맥도가 빠르다. 습열이 온결하여 장도에 있으면 장도의 맥락이 수손(授損)하고 변혈을 이룬다.

장도전화(腸道轉化)가 실상(失常)하면 배변이 불창(不暢)하고 혹은 희당(稀漉)과 변혈이 동반한다 하고 있다. 장도기(腸道氣)가 막히면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청화습열(淸化濕熱)과 양혈지혈(涼血止血)의 효력을 구하기 위하여 지유산(地榆散)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괴각환(槐角丸)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지유산(地榆散)은 지유 천초(止血) 치자 황금 황련(瀉火解毒) 茯苓(淡滲利濕) 등의 작용이 있다 (이 둘 藥들은 寒性으로 止血藥이라 下行)

괴각환 : 괴각자 지유양혈과 지혈작용이 있고 황금은 청열과 조습의 작용이 있고 방풍 지각 당귀는 소풍이기(疎風理氣) 활혈 작용이 있고 이 두 처방을 비교하면 지유산은 청화 습열의 공이 더 강하고 괴각환은 보기활혈을 겸하여 작용하는 것으로서 증세의 정황을 보아가며 선택함이 가할듯하다.

비위 허한으로 발생하는 변혈은 색도가 암흑하고 복통이 은은하게 발생하고 뜨거운 것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면색이 불화(不華)하며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고 말을 하기를 싫어한다.

비위허한은 중기부족(中氣不足)으로 파약하며 비통혈(脾統血)의 失調가 原因으로 비허 무력(無力)하기 때문에 장내로 혈일(血溢)하여 대변을 따라 하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변은 암흑으로 변하고 중기허한(中氣虛寒)하면 한응기체(寒凝氣滯)하고 건운실사(健運失司)하면 복부은통(腹部隱痛)이 발생하고 변당(便漉)이 곁하여 발생하고 비위허한하고 기혈이 부족하면 면색이 불화(不華)하고 신피(神疲)하다. 이런때이면 양혈과 지혈의 목적으로 燈心 白朮 附子 甘草 阿膠와 鹿角霜과 炮乾薑과 艾葉 등을 곁하여 처방할 수 있다.

三. 結論

치출혈이나 장염에 의한 출혈 또는 원증(遠證)인 위출혈로 인한 배변전후에 출혈하는 것은 일단 상세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혈의 주인(主因)은 단순성이 있기도 하지만 연속성으로 하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증세(症勢)상으로 위험을 예고하는 수가 있다. 즉 직장 및 대장암이나 혹은 위출혈이 아래로 내려 올 수가 있으면 위장의 큰 손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장벽(腸癰) 등으로 인한 출혈이나 치출혈 등은 아래 있는 이 청장탕(淸臟湯)을 권하고 싶다.

便血에 代表的인 處方은

淸臟湯 - 白芍藥 槐角子 黃柏 梔子 各炒 川芎 黃芩 黃連 阿膠 地榆, 當歸酒洗 生地黃 厚朴 側柏 各3兩(一劑量)

• 食事前으로 하루에 3回 空心服하면 변혈에 特效處方임.

이 處方은 醫門寶鑑에 收載된 處方으로서 本來의 重量이 적고하여 藥理效力상으로 微微하여 큰 數로 重量을 올리고 便血患者에게 투여한 結果 약3첩만 服藥하여도 그 效力이 立效함을 볼 수 있다. 加厚朴하면 복통이 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하복이 팽만감(膨滿感)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梔子와 地榆는 黑炒가 필요하고 치 출혈이 심할때는 地榆를 삶은 물에 坐浴을 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좋다.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219-7 인화당한약방 ☎ 031-856-0014)